

お名前 () さん

50년 가까이 백신과 의료용 기기 한 우물만 파 온 중소기업입니다.

올해 벌써 창업자의 나이가 고회를 넘었지만, 기업을 물려주는 문제를

생각하면 앞이 막막할 따름입니다.

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.